

〈의산문답(醫山問答)〉의 장소와 인물 재론

정훈식*

- I. 들머리
- II. 의산(醫山)과 요야(遼野), 광대무변의 장소
- III. 허자(虛子)와 실옹(實翁), 다면적 인물형상
- IV. 마무리

<국문초록>

홍대용의 저작 <의산문답>은 파천황의 논리로 삼라만상과 무한의 세계를 논하고 있다. 그에 비해 텍스트의 전개를 위한 여러 요소의 설정은 매우 단순하다. 이 글은 <의산문답>의 장소와 인물 분석을 통해 텍스트가 무한의 세계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장소를 다시 살폈다. 그간 텍스트의 의미를 생성하는 장소로서, ‘화이의 접경’인 의무려산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함께 요야도 텍스트의 장소로 보아야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야는 텍스트에서 논하는 지원설, 무한우주설 등의 실제적 근거가 되는 배경이 되는 곳이다. 홍대용은 이 광활한 요야를 지나면서 체감한 지원설(地圓說)을 대거 <의산문답>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산문답>의 장소는 의무려산과 요야라 보았으며, 그 장소적 의미는 화이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광대무변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도드라진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인물을 살펴보았다. 허자와 실옹에게서 매우 다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허자에게는 연행을 한 홍대용의 경험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육전담교수

있으며, 조선의 일반 학자의 모습도 보인다. 실용에게도 역시 홍대용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대도(大道)를 깨우친 만년의 모습이 투사되어 있다. 그런데 실용의 기괴한 형상에서는 홍대용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실용에게는 홍대용이 중국에서 만난 세 선비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본격적인 문답에 들어서면 허자와 실용은 매우 추상화된다. 인물균(人物均), 지원설(地圓說), 지전설(地轉說), 무한우주설(無限宇宙說) 등으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실용은 물(物)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허자는 인간을 대변하는 구실을 한다. 추상화된 인과 물의 대변자로서 허자와 실용은 삼라만상을 토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형상으로 선택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의산문답>은 연행노정 가운데 대도를 논할 만한 최적의 장소에서, 비록 다면적인 성격이 보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세계의 두 부분을 대표하는 허자와 실용이라는 형상을 문답의 주체로 설정하여 삼라만상에 관한 거의 모든 담론을 전개한 텍스트다.

핵심어: 홍대용, <의산문답(醫山問答)>, 의무려산, 요야(遼野), 허자, 실용.

1. 들머리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일찍이 정인보가 그 중요성을 언급한¹⁾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다방면에서 성과가 축적되었다. 관련 연구사는 대략 세 방향으로 조망해볼 수 있다. 첫째, 텍스트의 성격이다. 애초 국문학에서 <의산문답>의 장르적 성격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다가,²⁾ 최근 이를 뒤이어

1) “선생의 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 또 <의산문답(醫山問答)>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오로지 근본과 말단을 찾아 밝히고 남과 나를 분석해 놓는 것으로, 당시에 있어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다.(今先生之書, 其最要者, …… 而又有曰醫山問答, 則傳以覈本剽而析人已, 在當時所, 僅見者.)”(정인보, 『湛軒書序』, 『담헌서』)

2) 김태준, 『홍대용 평전』, 민음사, 1981; 조동일, 『<醫山問答>과 <虎叱>』,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임형택, 『홍대용의 『의산문답』 - ‘虛’와 ‘實’의 의미 및 그 산문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³⁾ 둘째, 텍스트에 담겨있는 학설과 사상이다. 그 내용이 지닌 특성상 과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문제는 특정 분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고찰한 나머지 텍스트를 형성하는 여러 계기를 간과한 채 특정 분야의 텍스트로서만 규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장자, 천문학 등 외부의 지식과 사상이 일방적으로 <의산문답>에 영향을 주었다는 단선적인 결론에 이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⁴⁾ 마지막으로 <의산문답>의 저작과 관련한 제 문제다. 저술 시기와 저술 배경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 텍스트 저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여기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⁵⁾

성격,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박희병, 『홍대용의 생태적 세계관』 및 『홍대용 사상에 있어서의 物我의 상대성과 동일성』,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3) 윤주필, 『朝鮮朝 寓言小說의 反文明性 - 『의산문답』의 허구적 장치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제12집, 한국도교문화학회, 1998; 김진숙, 『홍대용의 『의산문답(醫山問答)』 읽기와 문학 교육적 성찰』, 『우리어문연구』 제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우지영, 『문답식산문의 창작전통에서 고찰한 홍대용의 의산문답』, 『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문학회, 2012; 이승준,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 연구 - 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53집, 우리어문학회, 2015.

4) 이에 관해서는 박희병, 『홍대용 연구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한국의 생태사상』)과 『홍대용 사회사상 형성의 제 계기』(『범애와 평등』)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5) 김동건, 『의산문답의 창작배경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6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김동건, 『열하일기와 의산문답의 관계 재론』, 『대동문화연구』 제8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夫馬進, 『조선 귀국 후 홍대용의 중국 지식인과의 편지 왕복과 “의산문답”의 탄생』, 鄭光·藤本行夫·金文京 공편, 『燕行使와 通信使』, 박문각, 2014.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간혹 나타나는 오류는 <의산문답>의 저술과 관련한 여러 배경 가운데 관심 있는 한 가지 점에만 중점을 두고 고찰한 나머지 다른 여러 사안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우선 김동건(2013)의 글에서 홍대용이 천주당에서 신부를 만나고 실망하여 <의산문답>을 저술했다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북경에서 천주당을 찾은 이유는 자신이 만든 혼천의에 생긴 약간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일이 잘 되지 않아 실망하였고, 이 때문에 <의산문답>을 저술했다는 논지가 핵심이다. 홍대용이 연행에서 천주당을 방문하려고 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홍대용이 연행에서 계획했던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며, 핵심 목적은 “높은 선비를 만나 중국 사정과 문장 도학의 숭상하는 바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의산문답>은 과학, 천문학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 “실망감을 상쇄시키고 더 발전된 학설을 주장하기 위해” 저술했다는 논리는 홍대용을 당사자가 그렇게 비판한 조선의 오만한 학자로 전락시키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글에서는 홍대용의 지식은 이미 연행이전에 일정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연행을 통한 충격은 없다고 하였다. 홍대용 연행록을 정독했다면 담헌이 연행 중 수많은 견문을 통해 많은 배움과 더 깊이 생각할 자료를 얻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후마 스스무는 홍대용이 중국 학인과 주고받은 여러 편지를 근거로 들며, 특히 업성의 편지를 받고 주자학에서 탈피하여 이단 특히 장자로 대표되

간략히 살펴본 연구사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의산문답> 연구의 키워드는 홍대용의 삶, 학문(사상), 글쓰기다. 이들이 상호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제 요소의 상호 관련성을 항상 논의의 전제로 두어야 비로소 <의산문답>의 진면목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특히 유념하면서 여기서는 <의산문답>의 글쓰기 방면에 대한 재검토에 중점을 두고자한다. 홍대용은 학문과 세계관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이라는 동아시아 전통의 산문 형식에 담아놓았지만, 저술 당시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발화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을 위해 고심하였다고 짐작된다.⁶⁾ 이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위해 이 글은 우선 장소의 문제, 실용과 허자의 인물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시 살피고자 한다.

II. 의산(醫山)과 요야(遼野), 광대무변의 장소

<의산문답>에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의무려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텍스트에서 밝힌 대로 ‘화이의 집경’이라는 뜻을 품은 장소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과연 의무려산이 그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을까? 최근 들어 의무려산을 중의적 장소로 해석하여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⁷⁾이

는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것이 텍스트의 내용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이 또한 <의산문답>을 이루는 여러 계기들을 두루 고려하지 않고 특정 한 곳에서만 영향을 받았다는 논리적 함정에 빠져있다. 나아가 <의산문답>의 탄생이 분격(憤激)에 있다고 하였다. 즉 홍대용이 세상과 불화하여 그 분노가 넘쳐 <의산문답>을 지었다는 말이다. 문제는 <의산문답>이 결코 분노로 가득 찬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장대한 규모의 파노라마와 같은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실망감’과 마찬가지로 ‘분격’이 <의산문답> 저술의 동기라는 논리는, <의산문답>에서 말하는 학문을 망치는 네 가지 마음(矜心, 勝心, 權心, 利心)에 의거해 보아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 실망감, 분격이라는 것은 자만심, 이기려는 마음 등과 뿌리가 같은 감정이라 할 수 있다.

6)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한 편이다. 조동일의 견해가 대표적인데, <의산문답>이 『호질』에 비해 사상 표현의 방식을 크게 쇄신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조동일, 『18세기 인성론의 혁신과 문학의 사명』,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352~371면)

7) 길진숙, 앞의 논문, 176~177면.

나, ‘허자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입사의식의 공간’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소 진전된 해석이나 이마저도 부분적인 해명에 그친다. 그러한 해석으로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제 요소를 유기적으로 구조화하면서 전개한 <의산문답>의 글쓰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산문답>의 장소를 논할 때 주로 화이의 경계인 의무려산에만 주목한다는 점이다. 제목에 장소가 명시되어 있거니와, 의무려산의 위치가 화이론을 논하기에 적절한 장소라는 점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만 본다면 <의산문답>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천지의 체형과 정상, 삼라만상의 근본을 설파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텍스트의 장소 설정과 그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려면 표제에 명시된 장소인 의무려산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펼쳐진 요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무려산과 함께 요야를 텍스트의 의미를 생성하는 장소로 상정하여 살피고자 한다.⁹⁾

의무려산에 올라 남쪽으로 창해와 북쪽으로 대막(大漠)을 바라보고 눈물을 줄 줄 흘리면서 말하기를,

“노답(老聃)은 ‘호(胡)로 들어간다.’고 했고, 중니는 ‘바다에 뜨고 싶다.’고 했으니, 어찌 그만 돌꼬, 어찌 그만 돌꼬.”

하고는 드디어 세상을 도피할 뜻을 두었다.

수십 리쯤 가니 앞에 돌문이 나왔는데 실거지문(實居之門)이라고 써어 있다. 허자가 말하기를,

“의무려산이 화이의 접경에 있으니, 동북 사이에 이름난 산이다. 반드시 숨은 선비가 있을 것이니, 내가 반드시 가서 물어 보리라.”

하였다.¹⁰⁾

8) 조규익, 『연행 길, 고통의 길, 그러나 깨달음의 길』,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308~316면; 이승준, 앞의 논문, 153~179면.

9) 근래 필자는 “<의산문답>은 요동의 공간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작품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 텍스트의 공간인 의무려산은 요야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산으로 여기서 홍대용은 화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세계를 펼쳐 보인다.”라고 한 바 있다(정훈식, 『조선후기 연행록에 나타난 요동』,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 인식』, 세종출판사, 2007, 279면). 이를 이어 몇몇 생각을 여기서 덧붙이고자 한다.

10) “乃登醫巫閭之山，南臨滄海，北望大漠，泫然流涕曰，老聃入于胡，仲尼浮于海，烏可已乎，烏可已乎，遂有遷世之志。行數十里，有石門，當道題曰實居之門。虛子曰，醫巫閭處夷夏之交，東北之

<의산문답> 서두에 나오는 대목이다. 허자는 30년 독서를 하고도 조선에서 외면당하자 북경에 갔으나 거기서도 자신의 도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돌아오다가 의무려산에 올랐다. 길게 뻗은 산 앞으로 가없는 요동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뒤는 몽골로 이어진다. 산에 오른 허자는 앞으로 창해(혹은 요야)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은거할 뜻을 품고 산 속으로 들어갔다. ‘실거지문’이라 써놓은 석문을 보고는 의무려산이 ‘화이의 접경’이니 틀림없이 숨어 사는 선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이하지교(夷夏之交)’와 ‘일사(逸士)’는 기실 논리적 연관성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진술이 가능했던 까닭은 아마도 산의 역사적 내력 때문일 것이다. 의무려산은 동아시아 식자층에게 유람의 대상이자 학문의 거처로, 이곳에는 야율초재,¹¹⁾ 하흠¹²⁾ 등 중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비들이 은거하며 학문을 닦은 사적이 남아 있다. 야율초재는 여러 분야에 두루 조예가 깊었는데, 이는 홍대용의 학문 성향과 닮았다. 그러한 사적을 담헌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또한 홍대용이 의무려산에 오르면서 지나친 ‘잠곡정사(潛谷亭舍)’라는 곳은 하흠이 거처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¹³⁾ 귀국 후에 엄성에게 편지를 써서 “의무려산에 들어가서는 하흠의 높은 절개를 우러러보았습니다.”¹⁴⁾라고 할 만큼 홍대용에게 있어 의무려산은 글하는 선비의 거처로 인식되었다. ‘화이의 접경에 있는 산’이니 ‘숨어사는 선비’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는 아마도 이런 점에 기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의무려산을 ‘화이의 접경’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 학문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곳은 화이의 구분을 넘어서서 다양하고 개방적인 학문의 교류가 이루어지

名嶽也，必有逸士居焉，吾必往叩之。”(洪大容, 『鑿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 11) 야율초재(耶律楚材, 1190~1244)는 요(遼)나라의 왕족 출신으로, 대대로 금(金)나라를 섬기다가, 몽골이 일어서자 투항하여 공신(功臣)이 되었다. 의무려산에서 수학하면서, 천문과 지리, 수학, 의학, 유불도 사상에 두루 통달했다. 고전번역원 DB 참조.
- 12) 하흠(賀欽, 1437~1510)은 명(明)나라 정통(正統) 성화(成化) 연간의 성리학자로 소식적에 이 산에 우거(寓居)하며 독서했다. 자신의 호를 의려산인(醫巖山人)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문집인 『의려집(醫巖集)』 9권이 조선의 학인(學人)들에게 널리 읽히기도 하였다. 고전번역원 DB 참조.
- 13) “또 동으로 수십 보를 가니, 잠곡정사가 집터만 남아 있다. 이는 명나라 때의 처사 하흠이 거처하던 곳이다.[又東行數十步，有潛谷精舍，只存遺址，是皇明處士賀欽所居也]”(金景善, 『回程錄』, 『燕轅直指』 卷5)
- 14) “入巫閭仰賀欽之高節。”(洪大容, 『與嚴鐵橋誠書』, 『杭傳尺牘』, 『湛軒書』外集 卷1)

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교(交)’의 뜻에 더 잘 부합된다.

또한 화이의 접경으로서 의무려산은 중국이 획정한 인위적인 장소를 가리키지만,¹⁵⁾ 대자연으로서의 의무려산은 그런 구획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곳은 요동들판이다. 이곳은 직접적으로 문답의 장소로 설정된 곳은 아니지만, 문답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다. 특히 실용의 발언을 통해 이곳이 천지의 체형을 살필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홍대용의 체험이 텍스트에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에서 요야를 본 소감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0여 리를 가서 석문령을 넘었다.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이곳에 이르러 다 산이 험하고 물이 많아 길과 마을이 다 산 가운데 있어 우리나라 두뻗길과 다름이 없더니, 이 재를 넘어 10여 리를 가서 뾰 어귀를 나가니 큰 들이 하늘에 닿아 앞으로는 산을 보지 못하였다. 먼 수풀과 희미한 촌락이 구름 가운데 출몰하는 거동이 일시 경치가 좋을 뿐 아니라, 실로 사람의 웅졸한 가슴을 통연히 헤치고 악착한 심사를 돈연히 잇을 만하였다. 스스로 평생을 헤아리니 독 속의 자라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큰 곳이 있는 줄 뜻하였겠는가. 이때 비를 뿌리고 구름이 들을 덮어 비록 멀리 바라보지 못하나, 수레에 앉았으니 은연히 한 뉘 작은 배를 만경창해에 띄운 듯하니, 과연 평생의 큰 구경이요, 장부의 쾌한 놀음이었다.¹⁶⁾

홍대용이 석문령을 넘어 처음으로 요야를 바라보는 대목이다. 우선은 좁은 땅에 살다가 드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을 느꼈지만, 그보다 주목할 대목은 거대한 자연 속에서 자신이 독 속의 자라와 같음을 깨달았다는 토로다. 대자연으로서의 요야에서 미물로 서있는 자신에게는 이 순간 자체가 평생의 큰 체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문본 『연기』를 보면 조금 다르게 썼다.

15) 성대중이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오랑캐니 중국이니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이지 땅이 어찌 차별함이 있겠는가.[曰夷, 曰夏, 人則異之, 地豈嘗分別也]”(성대중, <다 른 것과 같은 것>, 『성언(醒言)』, 『청성잡기(靑城雜記)』); “오랑캐와 중화의 구분은 사람이 한 것이지 하늘은 똑같이 아들로 여긴다.[夫華夷之別, 人也, 天則等是子也]”(성대중,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성언』, 『청성잡기』)

16) 홍대용 지음, 정훈식 옮김, 『을병연행록』 1, 경진, 2012, 97~98면.

요동에서 서쪽으로 3백 리를 가면 대륙이 바다처럼 가없이 넓어 해와 달이 들에서 떴다가 들에서 진다. 신점촌에 당도하자 뒤쪽에 열 두어 길이나 되는 작은 구렁이 하나 있기로 올라갔더니, 조망이 참으로 상쾌하였다. 대개의 경우는 평야를 통과한다 해도 사방의 조망이 10여 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바다를 보지 않거나 바다와 같은 요야를 건너보지 않고서는,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가 마침내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¹⁷⁾

여기서도 홍대용은 이제껏 보지 못한 광활한 평지를 보고 조망이 상쾌하다고 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요야를 건너보지 않은 자는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체험적 진술이다. 이는 요동들판이 홍대용에게 있어 그가 밝아본 땅 중에서 천지체형과 정상, 삼라만상의 원리를 살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의산문답>에서 허자는 의무려산에 올라 요야를 보면서 자신의 학문을 알아주지 않은 것을 두고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 홍대용은 요야에서 이렇듯 광활한 자연을 체험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홍대용은 실용의 입을 통해 텍스트 곳곳에 관련 내용을 기술해 두었다.

- (가) 무릇 지구는 물과 흙이 바탕이 된다. 그 형체는 원형이고, 쉬지 않고 돌며 공중에 떠 있고, 만물은 그 표면에 의지하여 붙어있다.¹⁸⁾
- (나) 항해를 하면 해와 달이 바다에서 뜨고 바다로 지며, 들판에서 바라보면 해와 달은 들판에서 나와 들판으로 들어간다.¹⁹⁾
- (다) 세상 사람들은 옛 습관에 안주하여 익히되 살피지는 않으며, 이치가 눈앞에 있는데도 탐구하지 않아, 평생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면서도 그 실정에는 어둡다. 오직 서양의 어떤 지역은 슬기로운 기술이 정밀하고 상세하며 측량을 잘 알아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²⁰⁾

17) “自遼東西行三百里，大陸漫漫無涯。日月出於野而沒於野。至新店村後，有小陵十數丈，登眺甚快。蓋行平野，四望不過十餘里。是故不觀海不度遼，地圓之說，終不得行也。”(洪大容, 『沿路記略』, 『燕記』, 『湛軒書』外集 卷8)

18) “夫地者，水土之質也，其體正圓，旋轉不休，滄浮空界，萬物得以依附於其面也。”(洪大容, 『鑿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19) “海行則日月出於海而入於海，野望則日月出於野而入於野。”(洪大容, 『鑿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20) “世之人，安於故常，習而不察，理在目前，不曾推索，終身戴履，昧其情狀。惟西洋一域，慧術精詳，測量該悉，地球之說，更無餘疑。”(洪大容, 『鑿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의산문답>에는 지원설(地圓說), 지전설(地轉說), 무한우주설(無限宇宙說) 등 지구와 천체의 모양과 운동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중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지원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가)는 지구 밖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듯 지구의 움직임과 형태를 설명한다. (나)는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문투를 보아도 홍대용이 요야를 건너면서 남긴 기록과 매우 흡사하다. 마지막으로 (다)는 중국이나 조선 사람들은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잘 탐구하지 않아 지원설을 깨닫지 못하지만, 서양은 기술발달로 이러한 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대목은 홍대용의 천체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내용으로, 의무려산에 오른 경험 못지않게 요야를 가로지른 경험이 이런 기록의 형성에 크게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의산문답>의 장소적 의미는 의무려산만을 논하는 기존의 시각을 확대하여 요야를 함께 시야에 넣고 보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의 인물이 문답을 나누는 장소로서 의무려산은 그저 ‘천하문명의 중심부’와 대비되는 ‘동북 변경의 한 모퉁이’²¹⁾라기 보다는 지구와 우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광활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 동아시아 문명론의 혁신 담론을 펼칠 최적의 장소라 할 만하다. 근래 중국 측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의무려산에도 ‘큰 산(大山)’²²⁾, ‘광대무변의 군산(群山)’²³⁾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에 의하면 의무려산 또한 광대무변의 장소로서 요야와 함께 통일된 의미를 형성한다. 이렇듯 <의산문답>에서 의무려산과 요야는 인물, 지구, 우주, 그리고 문명론 등을 펼치기에 좋은 장소로서, 그 문답의 내용에 맞게 광대무변의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²⁴⁾

21) 임형택, 앞의 책, 168면.

22) “... 醫巫閭山, 東胡族語, 意爲大山...”(蕭廣善 編注, 『閭山詩選』, 遼寧人民出版社, 1987, 3면)

23) “醫無閭山, 又稱醫巫閭山, 在今遼東的北寧市. 北寧又稱北鎮, 有鎮守祖國東北的意義在內. 揚雄《方言十二》: ‘醫, 幕也, 謂蒙幕也.’ 閭, 通律, 是衡兩的意思. 《爾雅·釋言》: ‘律, 詮也.’ 《說文》: ‘詮, 衡也.’ 《廣雅·釋言》: ‘詮, 量也.’ ‘醫無閭’就是覆蓋得廣大無邊無法衡量的意思. 所以把‘醫無閭’解釋成廣大的意思是對的, 說明醫無閭是廣大無邊的群山.”(王玉華, 『醫巫閭質疑』, 『中國地名』總第111期, 2003. 11면)

24) 『열하일기』의 이른바 ‘호곡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요야를 ‘거대한 중국 문명의 표상’(김명

요컨대 의무려산과 요야는 천체의 정상과 화이론 등 동아시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논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서 텍스트의 배경으로 설정되었다. 의무려산이 화이의 접경이자 교류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라본 요야는 하늘과 맞닿은 일망무제야다. 광활하게 펼쳐진 들판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을 보면 저절로 우주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체험을 한 홍대용의 연행 경험은 <의산문답>의 장소설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곳은 사람의 손이 아직 덜 닿은 곳으로, 중국과 조선을 벗어나 대도(大道)를 펼칠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홍대용은 이 자리에서 실옹의 입을 통해 그 대강(大綱)을 설과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의산문답>의 장소적 의미를 파악할 때 의무려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함께 요야를 주목해야 것이다.

III. 허자(虛子)와 실옹(實翁), 다면적 인물형상

<의산문답>에서는 허자와 실옹, 오로지 이 두 가상의 등장인물이 문답을 주고받는다. 이상은이 『답헌서』 해제에서 허자를 “당시의 세속적인 번문허식(繁文虛飾)을 숭상하는 자, 체면지키는 양반, 성리공담(性理公談)을 하는 도학자(道學者), 전통사고에 얽매인 부유(腐儒)들을 대표(代表)하는 사람”, 실옹을 “담헌의 이상 속에 있는 새 지식을 가진 실학적(實學的)인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²⁵⁾이라고 인물형상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허’나 ‘실’이라는 글자의 의미에 충실하여 기술한 것이 이후 실옹과 허자의 인물형상에 대하여 하나의 규범적 해석이 되었다. 최근 들어 인물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의하면 실옹과 허자는 홍대용의 두 분신으로 보기도 한다.²⁶⁾ 진전된 해석이기는 하나, 여기

호, 『열하일기의 문체에 대하여 - '好哭場論'을 중심으로』, 김학성·최원식 외,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178면)이나, ‘중화문명의 본질’(김동석, 『열하일기의 서사적 구성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제9집, 한국실학학회, 2005, 97~98면)이라고 보았으나, 이러한 해석은 적어도 <의산문답>에서는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의산문답>에서 요동 들판은 천체를 대면할 수 있는 곳이다.

25) 이상은, 『해제』, 『국역 답헌서』 1, 민족문화추진회, 1974.

서도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않다.

우선 허자의 모습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전술한 대로 최근 논의에서 허자의 다면적 성격에 주목하여 조선의 속유와 분신으로서 홍대용 자신을 제한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²⁷⁾ 실제 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문답이 진행되기 전까지 허자의 모습은 홍대용의 삶과 많이 닮았다. 허자가 조선 사람으로 30년간 은거독서를 하고 북경을 다녀온다는 설정은 자신의 생애 전반부 학문의 과정과 연행 경험을 그대로 투영해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북경에 갔으나 실의에 빠져 돌아오는 길에 의무려산에서 실웅이라는 인물을 만나 이른바 대도를 듣고 크게 각성한다고 설정한 대목을 보면, 홍대용이 그의 삶을 허자에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 우선 허자가 북경에 자신의 학설을 유세하려고 갔다는 설정은 홍대용의 여행목적과 차이가 있다. 그는 대국의 규모를 살피고 높은 선비를 만나볼 목적으로 중국 여행을 나섰기 때문이다.²⁸⁾ 그리고 북경에서도 자기를 알아주는 선비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도 홍대용의 실제 행적과는 다르다. 항주의 세 선비를 만나 교류한 것은 홍대용의 연행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훗날 연행을 통해 조선과 청나라 지식들 사이에 교류의 물꼬를 튼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건이다. 항주 세 선비는 개방적 자세로 홍대용의 학문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였음을 홍대용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교류한 기록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²⁹⁾ 다만 그들이 실웅처럼 홍대용을 대도(大道)의 세계로 안내하여 깨우쳐

26) 조동일은 '표면상으로는 작자가 허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실웅의 말을 통해 자기 생각을 나타냈다.'고 했다.(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329면.) 이밖에 이승준은 짚패로 해석했으며(앞의 논문), 박희병은 실웅과 허자를 홍대용의 분신이라고 보면서, 실웅은 '갱신된 담헌, 이전의 자기가 지양된 담헌', 허자는 유교와 성리학에 바탕을 둔 담헌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박희병, 앞의 책, 2013, 135~141면.)

27) 박희병, 앞의 책, 138면.

28) "이런 길은 대국의 변화하고 장려한 규모를 구경하고자 함이나, 근본 계교는 높은 선비를 얻어 중국 사정과 문장 도학의 숭상하는 바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홍대용 지음, 정훈식 옮김, 『을병연행록』 1, 경진, 2012, 455면)

29) 박지원은 홍대용에게서 항주 세 선비와의 만남을 기록한 필담집의 서문을 써달라는 청을 받고 서문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홍대용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내가 감히 국내에 그럴 사람이 없어서 서로 사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지역에 국한되고 속속에 구애되어 마음속에 담담한 생각이 없을 수 없지. 내 어찌 오늘의 중국이 옛날의 제하(諸夏)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옷이 선왕들의 법복(法服)이 아닌 것을 모르겠는가. 비록 그렇다 하여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덩이가 어찌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가 밟던 땅이 아니며, 그 사람의 사귀는 선비가 어찌 제·노·연·조·오·초·민·축의 널리 보고 멀리 늘던 선비

주는 그런 존재라고 보기에는 물론 어렵다.³⁰⁾

또한 허자는 부유(腐儒)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독실하게 글을 읽었다. 비록 유불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사뭇 높은 경지에 이른 인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도리를 밝히고 사물의 이치에 회통’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비록 실옹의 입에서 나온 대도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실옹의 말 대로 유학의 강령은 갖추었을 정도에는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 허자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치가 조선은 물론 중국에서도 외면당했으니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만약 허자가 조선의 일반적인 유자(儒者)라고 보면 그가 깨달은 도는 진부한 견해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허자가 홍대용의 분신이라고 한다면 그가 깨달은 도는 오히려 매우 급진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일 것이다. 해서 조선이나 중국 어디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가능성이 크다. 홍대용이 허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일정하게 반영했다면, 자신이 깨친 새로운 생각을 직접 설파하기가 저어되는 상황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허자에게 투사하고, 대신 그 생각은 실옹의 입에서 대도라는 이름으로 나오도록 설정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허자는 홍대용의 분신, 조선의 속유 등 어느 하나도 분명치 않게 보이도록 모종의 트릭을 쓴 형상으로 짐작된다.

가 아니며, 그 사람의 읽는 글이 어찌 삼대(三代)이래 사방 여러 나라에 한없이 펼쳐진 서적이 아닐 수 있는가? 제도는 비록 바뀌어도 도의는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니, 이른바 옛적의 제하(諸夏)가 아니라 하는 것이, 또한 어찌 그 백성 노릇을 하면서도 그 신하 노릇은 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렇다면 저 세 사람들을 우리와 비교할 때 또한 어찌 화이(華夷)의 구별이 없고, 형적이나 등위에 관한 혐의가 없을 것인가? 그런데 번다한 형식을 타파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썼어 버리고 진정을 피력하고 간담(肝膽)을 토로했으니, 그 규모의 광대함이 어찌 소문이나 명예, 세력이나 이익의 길에 매어달려 조물조물하게 악착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이겠는가?”(박지원, 『회우록서』, 『담헌서』 외집 권1)

- 30) 한편, <의산문답>에서는 북경에서는 자신을 알아주는 선비를 만나지 못하고 의무려산에서 만나는 것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아마도 홍대용이 북경에서 향주의 세 선비를 사귄 일을 두고 일어난 논란을 의식한 설정으로 짐작된다. 앞서 <의산문답>의 장소인 의무려산이 학문의 교류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해석한 것을 수긍한다면, 홍대용은 그가 고향삼재와 만난 일은 이러한 이국의 선비를 만나 학문과 지식을 교류를 한 것 외에 어떠한 혐의적움도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닐까. 즉 의무려산에서 실옹과 허자가 만나 문답을 나누는 설정은 홍대용의 연행경험과 이 가운데 세 선비와 사귄 일에 대한 자평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실옹에 향주의 세 선비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이상은이 말한 대로 그가 만나려고 했던 이상적인 선비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옹 또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옹은 앞서 말한 대로 혁신적 세계관을 깨친 홍대용의 모습과 항주 세 지식인 또는 홍대용이 생각한 이상적인 학자의 모습이 어우러져 빚어진 형상이다. 그런데 실옹의 외양이 주목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겠지만, 흙과 나무가 뒤엉켜(土木之形) 퀘이(詭異)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 모습으로 실옹은 허자를 앞에 두고 천지만물의 이치가 담긴 대도를 설파한다. 실옹은 어찌하여 이토록 기괴한 모습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짐작컨대 여기에는 홍대용의 실존적 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라는 사회역사적 시공간에서 그의 학문과 사상, 또는 그의 인생 역정과 사족계층에서의 위상³¹⁾이 당대 조선의 일반 유자들 눈에는 이렇듯 기괴한 형상에 가까울 것이라는 존재론적 성찰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것이 자기 비하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조선의 현실에서 그나마 독실하게 책을 읽고 학문을 닦은 허자³²⁾의 눈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학문과 사상은 이와 같이 기괴한 모습을 떨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진단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실옹을 다시 보면 비단 홍대용의 사상이 투사된 형상일 뿐만 아니라, 홍대용의 사회적 자의식이 반영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곧 홍대용은 자신의 대도를 조선의 학문풍토에서는 직설하기 꺼려 외형상으로는 자신의 분신이 허자인 듯 꾸며두고, 그 자신의 생각을 펼칠 캐릭터로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한 실옹으로 설정하여 발언하고 있다고 보인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러 캐릭터가 덧붙여져 형상화된 실옹과 허자의 모

31) 물론 홍대용의 가문과 학맥으로 보건대 별열 출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의 태생적 환경과 조건으로만 보면 그러하지만, 그의 의식과 삶은 이점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계적을 밟고 있음을 유의하고자 한다.

32) 허자의 이러한 면모로 보건대 필자는 허자를 다만 조선의 부유(腐儒) 혹은 허학에 매몰된 유자, 일반적인 유자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허자는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는 유학자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학문 분야인 성리학이나 도가 불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이들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념에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나마 성실히 학문을 연마하였기에 실옹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갈 수 있는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호질』의 북곽 선생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북곽 선생이야 말로 부유 혹은 향원(鄉愿)에 가깝다. 아마도 홍대용은 조선의 허자와 같이 새로운 학문을 두고 토론하여 진리성이 인정되면 받아들일 태도를 갖추고 있는 학자조차도 그리 많지 않음을 은연중 드러내고자 하였을 법하다.

습은 이렇듯 다면적이다. 허자는 조선의 일반 유자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저자의 연행 경험을 반영한 것에서 보면 홍대용 자신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투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옹 역시 홍대용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항주의 세지식인의 모습이기도 하며, 홍대용의 학문과 사상을 발언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분장술을 동원하여 인물을 다면적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모호하게 형상화 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홍대용의 학문과 경험에서 도출한 결과로 보인다. 곧 당시 조선의 학계의 실정을 매우 냉소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새로운 시대³³⁾에 맞는 사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역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우 치밀하고도 정교한 형상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실옹의 기이한 모습을 통해서 조선 학문의 냉엄한 현실을 엿볼 수 있으며, 실옹의 입에서 설과되는 대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에 맞는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홍대용의 궁극적 의도를 살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 저술에 대한 조선 사회에서의 비판을 예상하고 고안한 교묘한 장치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비슷한 혐의를 피할 수 없었던 『열하일기』를 보더라도 박지원은 이 연행록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갖은 기교와 트릭을 구사하며 북학론과 조·청 관계(화이론), 그리고 심세(審勢)에 관한 자신의 핵심적인 사유를 곳곳에 숨겨놓았다. 그런데 홍대용의 연행록을 보면 홍대용의 사상의 핵심 내용을 조리 있게 기술해 두지는 않았다. <의산문답>에서 보이는 인물론, 지전설, 역외춘추론 등의 내용은 그의 연행록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연행관련 행적과 기록은 조선에서 논란에 휘말려, 그는 김중후에게 단지 청나라 선비와 사귀고 필담을 나누었다는 점 때문에 비난을 받으며 시달려야 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의 사상과 학문을 더욱 예리하게 버린 <의산문답>에서는 그보다 훨씬 치밀한 대응 논리와 설득력을 담보해야 했다. 새로운 논리의 설과를 위해 근거와 논증이 정확해야 하며,³⁴⁾ 때로는 트릭과 기교로 위험한 혐의에서 벗어날 장치

33) 여기서는 명·청의 교제를 통한 청조의 중원 응거와 변영을 가리킨다.

34) 정인보가 『담현서서(湛軒書序)』에서 <의산문답>에 대해 말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증명하되, 흑백을 나누듯이 분명하게 해, 낯은 것에 고착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된 바를 알도록 하였다.”는 대목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를 마련해야 했다. 이처럼 홍대용도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당대 조선사회의 학문적 이념적 상황에서는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발언으로 가득 찬 <의산문답>의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고도의 구성 책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바로 허자와 실옹이라는 다면적이고도 모호한 형상 간의 문답 구성이다. 이로 보면 허자와 실옹은 허학과 실학의 전형적 인물형상 뿐만 아니라 홍대용 그 자신은 물론 조선과 중국 학인들의 모습 등 이질적 성격이 서로 얽혀있는 형상으로 매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지닌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주로 허자와 실옹의 인물형상을 홍대용의 삶, 사회역사적 현실과 연관지은 해석이다. 한편, 텍스트 내적 구조의 유기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면 실옹과 허자는 위와 같은 해석만으로는 온전히 해명하기 어렵다.³⁵⁾ 특히 본격적으로 문답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발언하는 허자와 실옹에게서 또 다른 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실옹의 모습을 가까이서 다시 보자.

드디어 석문으로 들어가니 한 거인(巨人)이 새집처럼 만든 증소(檜巢) 위에 홀로 앉았는데, 모습이 괴이하였으며 나무를 쪼개서 글씨쓰기를 실옹지거(實翁之居)라 하였다.³⁶⁾

여기서 실옹을 비록 거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커다란 등지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거대한 괴물과 같은 형상이다. 허자의 눈에 의하면 실옹은 “나무와 흙이 뒤엉킨 거대한 형체를 지니며, 그의 목소리는 생황이나 종소리와 같이 깊은 울림이 있다.”³⁷⁾ 고대서사인 지괴나, 오늘날 판타지 문학에 나오는 형상과 유사하다. 이렇듯 기괴한 형상을 한 실옹이 과연 사람일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35) 물론 텍스트 내적 구조가 홍대용의 삶과 학문과 연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텍스트 안에서 여러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인물의 성격이라는 의미다.

36) “遂入門，有巨人獨坐于檜巢之上，形容詭異，斫木而書之曰實翁之居。”(洪大容, 『醫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37) “土木之形，笙鏞之音”(洪大容, 『醫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가) 그대는 과연 사람이로다. 오륜과 오사는 사람의 예의다. 때를 지어 다니며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이고, 무리지어 더부룩이 자라면서도 평안하고 느긋한 것은 초목의 예이다. 사람의 눈으로 물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물은 천하며, 물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물이 귀하고 사람은 천한 것이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사람과 물은 평등한 것이다.³⁸⁾

(나) 심하도다. 사람을 깨우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만물이 생김은 모두 둥글고 네모진 것은 없는데, 하물며 땅에 있어서랴.³⁹⁾

(다) 지구의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하늘에 두 개의 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의 극이 아니라 지구의 극인 것이다.⁴⁰⁾

(라) 내가 땅의 경계를 보건대 사람의 수명은 백년을 넘지 못하고, 나라의 역사에도 실제 그러한 사적이 전하지 않는다. 땅과 물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다.⁴¹⁾

이는 모두 실용의 말이다. 주로 인간을 대상화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가)에서 실용이 허자에게 ‘이성인아(爾誠人也)’라 한 말에서 실용이 사람과 다른 존재임을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깨우치기가 어렵다.’거나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등의 말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가 인간을 대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인간에게 물(物)의 본질을 비롯한 삼라만상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실용은 비단 홍대용의 분신 등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물(物)의 대변자라고 해석해도 될 듯하다. 곧 실용은 물(物)을 대표하는 형상이고 허자는 사람으로, 물과 인의 문답이 이루어지며, 물인 실용이 사람인

38) “爾誠人也, 五倫五事, 人之禮義也. 羣行吮哺, 禽獸之禮義也. 叢苞條暢, 草木之禮義也,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洪大容, 『鑿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39) “甚矣, 人之難曉也. 萬物之成形, 有圓而無方, 況於地乎?”(洪大容, 『鑿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40) “地界之人, 不之地轉, 故謂天有兩極, 其實非天之極也, 乃地之極也.”(洪大容, 『鑿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41) “余觀地界, 人壽不過百年, 國史未傳實蹟. 地水之變, 漸而不驟, 人不能覺也.”(洪大容, 『鑿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허자를 깨우치고 있다.

“부자는 이 무슨 말씀이오. 나는 자질구레한 데 국한되어 큰 도를 듣지 못했기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 엿보듯 종작없이 잘난 체했고, 여름벌레가 얼음을 이야기하듯이 무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부자를 뵈고 마음이 환히 트이고 이목이 쾌청하여져서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는 바이온데, 부자께서는 이 무슨 말씀입니까?”⁴²⁾

허자가 실옹에게서 대도의 한 부분을 듣고 한 말이다. 이 대목을 앞서 살펴본 홍대용의 요야 체침과 비교하여 보면 ‘요야’와 ‘실옹’만 바뀌었을 뿐 문장은 거의 유사하다. 홍대용이 요야에 이르렀을 때 이때까지 우물 안에 개구리였음을 느꼈듯, 허자가 실옹을 만나고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 마음이 트인 것도 같다. 곧 연행 중 요야에 이르러 생긴 느낌을 그대로 실옹을 만났을 때 느낌으로 대입해놓았다. 실옹은 요야처럼 광대무변의 물(物)을 대표하고, 허자는 그 속의 미물 즉 인간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때부터 허자와 실옹은 오로지 대도를 묻고 답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실옹은 처음 대면 할 당시에는 허자에게 대단히 냉소적이면서, 비타협적인 태도로 대하지만, 문답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점차 사라지고 사뭇 우호적인 사이로 변한다. 마치 오랜 동안 상호 신뢰를 쌓은 사제시간의 관계로 보이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며 실옹은 허자를 대도에 눈뜨게 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관계는 더욱 두터워진다. 물은 스승이고 인은 문하생이다. 곧 『주해수용』에서 “천(天)이라는 것은 만물의 시조이며, 태양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땅은 만물의 어머니이며 별이나 달은 만물의 여러 아버지”라며 천체를 가족계보에 빗댄 것과 닮았다. 만물가운데서도 사람 이외의 물은 사람의 스승이 된다고 그 관계를 규정하였다. <의산문답>에 나오는 ‘자법어물(資法於物)’과 ‘성인사만물(聖人師萬物)’은 바로 이 허자와 실옹의 관계를 은연중 규정하는 구절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단지 <의산문답>의 내용 속에서만 인물군의 논리가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글쓰기

42) “夫子是何言也。虛子局於謏陋，未聞大道，妄尊如井蛙窺天，膚識如夏蟲談冰。今見夫子，心瘳開豁，耳目清快，輪精竭誠。夫子是何言也。”(洪大容, 『醫山問答』, 『湛軒書』內集 卷4 補遺)

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드러나도록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허자와 실용을 허학과 실학의 대립적 형상으로 보면 작품의 문답에서 전개되는 이 같은 합일의 과정, 평등 지향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힘들다.

허자와 실용의 성격에서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특징은 매우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는 점이다. 본격적인 문답이 진행되면서 허자와 실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형상으로 변한다. 전반부에서 비록 이질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모습으로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형상을 띤다. 그러나 문답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형상이 조금씩 지워지고 매우 건조한 모습으로 바뀐다. 이 또한 허자와 실용의 다면적 형상의 한 부분이다. 인물형상이 다면적이라는 것은 전형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의산문답>에서 한 인물에 이질적인 여러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과 심리를 최소한 단순하게 묘사하는데 이 결과로 인물이 추상성을 띤다. 이는 아마도 <의산문답>이 다루고 있는 세계의 크기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산문답>에 담긴 세계는 실로 무한하여, 특정 계층이나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이를 안고 이야기를 끌고 가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가급적 추상적이며 개념화된 인물로 형상화하는 방법이 문답전개에 적절하였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텍스트 인물의 명명법은 다분히 이를 고려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허와 실이 합쳐질 경우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무한의 세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자와 실용에서 허와 실은 이 무한한 우주를 구성하는 두 개념에 다름 아니다.⁴³⁾

43) <의산문답>에서 인물의 명명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허(虛)자로써 호(號)를 한 까닭은 장차 천하의 실(實)을 살펴보고 싶어 한 것이며, 저가 실(實)자로써 호한 것은 장차 천하의 허(虛)를 타파하고자 함일 것이다. 허허실실은 묘도(妙道)의 진리니, 내 장차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리라[我號以虛, 將以稽天下之實, 彼號以實, 將以破天下之虛, 虛虛實實, 妙道之眞, 吾將聞其說.]” 이 대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허와 실이 대립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자의 발언은 허와 실의 합일을 피하기 위해 허가 실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허허실실’이라는 말이 주목된다. 이 말은 『손오병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대의 형체는 물을 형상하니, 물의 형체는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달려가고, 군대의 형체는 적의 실(實)한 곳을 피하고 허(虛)한 곳을 공격한다[夫兵形象水, 水之形, 避高而趨下, 兵之形, 避實而擊虛].”라는 대목과 관련 있다. 곧 병법에서 군대는 모양이 없고 실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전략과 전술도 달라야 한다는 의미인데, 홍대용은 이 허허실실을 “묘도의 진리”라고 하였다. 병법에서는 이말이 승리의 법칙이라는 의미지만, <의산문답>에서는 ‘대도에 도달하는 법칙’이라 해석된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면 『손오병법』에 나오는 이른바 ‘허실(虛實)’에서 착안하여 ‘허자’와 ‘실용’이라는 이

IV. 마무리

<의산문답>은 삼라만상과 무한의 세계를 담고 있다. 나아가 그 논리 또한 파천황에 가깝다. 그에 비해 텍스트의 전개를 위한 여러 요소의 설정은 극히 단순하다. 의무려산이라는 장소, 허자와 실옹이라는 가공의 인물, 그리고 두 인물이 주고받는 문답이 거의 전부다. 그간 텍스트를 보는 관점이 대체로 이러하였다. 이를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로만 볼 것인가. 오히려 거대한 세계를 담기 위해 그릇의 크기와 장치 또한 이에 맞추어 설정하려는 의도의 산물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텍스트는 광활한 세계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장소와 인물을 재론해보았다.

우선 장소를 다시 살폈다. 기존에는 ‘화이의 접경’이라는 의미를 지닌 의무려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렇게만 본다면 의무려산은 텍스트의 호한한 세계와 부합하는 장소가 될 수 없다. 해서 본고는 의무려산 뿐 아니라 요야도 텍스트의 장소로 보아야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요야는 의무려산과 잇닿은 들판으로 산에 오르면 육안으로 그 광활함을 실감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논하는 여러 논리, 특히 지원설, 무한우주설의 실제적 근거가 되는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홍대용은 요야를 지나면서 체감한 지원설을 대거 <의산문답>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산문답>의 장소는 의무려산과 요야라 보았다. 그리고 그 장소적 의미는 화이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광대무변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도드라진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인물을 살펴보았다. 허자와 실옹에게서 매우 다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허자에게는 연행을 하는 홍대용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조선의 일반적 학자의 모습도 보인다. 실옹에게도 역시 홍대용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대도를 깨우친 만년의 모습이 투사되어 있다. 그런데 실옹의 기괴한 모습에서 홍대용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를 명명한 것이 아닐까. 실제 홍대용은 항주 선비와 문답에서 “동방은 서적이 귀하여 이런 방식을 널리 보지 못하였거니와 다만 고루한 소견을 일체 믿지 않고, 오직 『손오병법』은 유학자가 한번 보았직한 글이라 생각합니다.(홍대용 지음, 경훈식 옮김, 『을병연행록』 2, 경진, 2012, 173면)”라며 이 책을 가치 있게 평하였다.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리학의 자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 체험, 궁리하여 새로운 사상을 깨쳤으나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비난과 냉소뿐이라는 실존적 자의식이 실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실용에게는 중국에서 만난 세 선비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그의 연행 경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세 선비와의 만남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인다. <의산문답>의 전반부에서 살필 수 있는 허자와 실용의 모습은 대체로 이렇게 다면적이고 이질적이며 모호하다. 본격적인 문답에 들어서면 허자와 실용은 매우 추상화된다. 인물군, 지원설, 지전설, 우주무한설 등으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실용은 물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허자는 인간을 대변하는 구실을 한다. 추상화된 인과 물의 대변자로서 허자와 실용은 삼라만상을 토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형상으로 선택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의산문답>은 연행노정 가운데 대도를 논할 만한 최적의 장소에서 비록 다면적인 성격이 보이기 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세계의 두 부분을 대표하는 허자와 실용이라는 형상을 문답의 주제로 설정하여 삼라만상의 모습과 기본 원리를 전개한 텍스트다.

이상 <의산문답>의 장소와 인물을 재론해 보았지만, 텍스트에 담긴 광활한 세계와 심오한 의미에 다가서기 위해 작은 논의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경선, 『연원직지』, 한국고전번역원 DB.
성대중, 『청성잡기(靑城雜記)』, 한국고전번역원 DB.
홍대용, 『국역 답헌서』, 한국고전번역원 DB.
홍대용 지음, 정훈식 옮김, 『을병연행록』 1~2, 경진, 2012.

2. 단행본

- 김태준, 『홍대용 평전』, 민음사, 1981.
김태준, 『홍대용과 그의 시대』, 일지사, 1982.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_____,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조규익,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조동일,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_____,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蕭廣普 編注, 『閔山詩選』,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7.

3. 논문

- 길진숙, 「홍대용의 <의산문답(醫山問答)>읽기와 문학 교육적 성찰」, 『우리어문연구』 제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165~196면.
김동건, 「의산문답의 창작배경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6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226~247면.
_____, 「열하일기와 의산문답의 관계 재론」, 『대동문화연구』 제8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170~194면.
김동석, 「『열하일기』의 <상기>에 수용된 화이지분의 비유 -<의산문답>을 통하여」, 『한문학보』 제3집, 우리한문학회, 2000, 291~316면.
_____, 「열하일기의 서사적 구성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제9집, 한국실학학회, 2005, 97~98면.
김명호, 「열하일기의 문체에 대하여-‘호곡장론(好哭場論)’을 중심으로-」, 김학성·최원식 외,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161~178면.
송영배, 「홍대용의 상대주의적 사유와 변혁의 논리」, 『한국학보』 제20집, 일지사,

1994, 112~134면.

우지영, 『문답식 산문의 창작 전통에서 고찰한 홍대용의 의산문답』, 『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문학회, 2012, 185~210면.

윤주필, 『조선조 우언소설의 반문명성-〈의산문답〉의 허구적 장치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제12집, 한국도교문화학회, 1998, 179~215면.

이승준,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 연구-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53집, 우리어문학회, 2015, 153~179면.

이현식, 『홍대용 의산문답 청나라론 단락의 구조와 의미』, 『태동고전연구』 제28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2, 33~63면.

_____, 『홍대용 의산문답 인물론 단락의 구조와 의미』, 『태동고전연구』 제35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35~66면.

정훈식, 『조선후기 연행록에 나타난 요동』,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 인식』, 세종출판사, 2007, 263~290면.

夫馬進, 『조선 귀국 후 홍대용의 중국 지식인과의 편지 왕복과 의산문답의 탄생』, 鄭光·藤本行夫·金文京 공편, 『燕行使와 通信使』, 박문각, 2014, 13~40면.

王玉華, 『醫巫閭質疑』, 『中國地名』 總第111期, 2003.

A reinterpretation of the places and characters of

<Uisan-mundap(醫山問答)>

Jung, Hun-Sik

This article is a reinterpretation of the places and characters of Hong Dae-yong's work <Uisan-mundap>.

First, I looked around again the places. I have noticed that I can grasp the true meaning of "Yô-yai(Liao-dong plain)" as a place of text as well as "Uimuryeo-san". Yô-yai" is a place where it becomes a practical basis for various logic that is discussed in texts, especially "Jiwon-seol(the theory is that the Earth is round)", and "Mubxen-Uju-seol(the theory is that universe is infinite)". Hong Dae-yong reflected a lot of "Jiwon-seol" which he experienced as he passed through "Yô-yai" in the <Uisan-mundap>.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laces of the <Uisan-mundap> are "Uimuryeo-san" and "Yô-yai". And the meaning of the place was not only the boundary of Hwai, but also more prominent as a vast uninhabited place.

Next, I studied the characters. You can see very multifaceted figures from "Heo-ja" and "Sbil-ong". The appearance of Hong Dae-yong, who is a traveler, is partly reflected in "Heo-ja". It also shows the general image of a confucian scholar of the Joseon Dynasty. "Sbil-ong" also reflects the shape of Hong Dae-yong, but the image of old himself, who realized the great truth, is projected here. Howev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Hong Dae-yong's social existence is reflected in a bizarre appearance of "Sbil-ong". Not only that, but also a part of the image of the three confucian scholars, whom he met in China. In the full-scale dialogue, "Heo-ja" and "Sbil-ong" are also highly abstracted. In the dialogue leading to "Inmul-gyun", "Jiwon-seol", "Jijeon-seol(heliocentric theory)", and "Mubxen-Uju-seol", "Sbil-ong" is portrayed as a representative of "Muk(物)", and "Heo-ja" plays the role of a representative of human.

keywords: Hong Dae-yong, <Uisan-mundap(醫山問答)>, "Uimuryeo-san(醫巫閭山)", "Yô-ja(遼野)", "Heo-ja(虛子)", "Sbil-ong(實翁)"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